

2002년 환경정책 추진 방향



윤 승 준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필자약력)

- 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사('81)
- 한양대 기계공학과 석사('88)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석사('90)
- '98 ~ '96 환경부 기술지원과장
- '96 ~ 2007 OECD 파견
- 2008 ~ 2019 지구환경과장
- * 2014 부이사관 승진
- 2019 ~ 현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1. 머리말

21세기의 첫 해가 지나갔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고 맞이한 새로운 세기였건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 빈곤과 기아, 질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되어 온 집약적인 경제활동의 결과 지구생태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로 인한 온실효과 등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과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있으며, 오존층 파괴, 사막화의 진전과 생물종의 멸종, 유해화학물질의 범람 등 인류의 생존과 지구생태계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정조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눈을 안으로 돌려보아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공기와 물의 오염, 가정과 산업현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 그리고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단절과 국토 훼손 등 국내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환경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하에서는 작년에 우리 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환경시책을 살펴보고 금년에 추진할 환경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2001년 환경정책 추진연황

새로운 세기를 맞아 2001년에는 환경(Ecology)과 경제(Economy)의 조화와 상생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동시

에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하여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부에서는 첫째,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둘째, 물·공기·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①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 ② 천연가스 보급 등 도시 대기환경 개선 ③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체계적 보전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셋째, 환경외교의 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 국제경기의 친환경적 관리체제 구축 등 환경행정의 혁신을 중점 추진하였다.

가.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 추진

종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토대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며,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자 원천이 되고 있다. 우리부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에코-2 프로젝트」를 2001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다. 「에코-2 프로젝트」란 환경을 상징하는 Ecology와 경제의 Economy에서 머리글자인 2개의 Eco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부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환경질을 개선하

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작년 1월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8개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5개분야 54개과제를 중점 추진하였다. 작년 7월에는 중국 북경에 '한국환경기술·산업전시관'을 설치하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환경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되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작년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23개 중점추진분야에 걸쳐 218개 과제에 대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환경부와 창업투자사 등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30억원의 환경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창업과 투자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사무실 제공 및 실험·분석기기 공동이용, 창업경영지원 등의 보육사업을 실시하여 개발된 유망 환경신기술이 기업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연구역량을 결집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2000년 10개소에서 2001년까지 15개소로 확대·설치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시책, 수요관리 중심의 용수관리시책 그리고 녹색GDP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연구추진 등 환경과 경제의 통합지표 개발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였다.

나. 물·공기·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의 선진화

환경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물, 공기, 쓰레기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부는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 '98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낙동강('99년), 금강('00년), 영산강·섬진강('00년)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작업이 이루어져 한강수계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나머지 3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음에 따라 상당한 시일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부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동안에도 끈질기게 언론,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대화와 설득 및 홍보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작년 12월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이 국

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정수장 처리기준 도입 등 먹는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으며, 원수 수질이 나쁜 지역의 정수장에는 취·정수 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후수도관 교체작업 등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천연가스 가격인하, 버스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용자금리 인하, 공공용지에의 충전소 설치 및 공용차고지 건설 등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자동차·정유업계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K-CAP(Korea Clean Air Program)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연료품질의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해 약 8조원에 상당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대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시책 등을 전개하였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발생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에 착수하여 악취저감, 자원재활용 및 온실가스저감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도의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각급 환경계획의 보완 등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국립공원 구역조정작업을 마무리하여 공원보전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도모하였으며, 동강지역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 환경행정 혁신프로그램 추진

우리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지난 2000년 마련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7개 분야 80개 과제에 대하여 16개 부처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세부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의제 21」을 확대하고, 그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강구하였다. 한편 「기후변화협약대책팀」을 확대·보강하여 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는 등 국제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황사저감대책,

서해오염 방지대책, 산성비 측정·감시 등 환경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금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친환경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국제경기 환경관리종합지침」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의 「월드컵 평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환경관리실태를 점검·종합평가하였다.

3. 2002년 환경정책방향

가. 4대강 유역환경관리체제 구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안이 01.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로소 4대강 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유역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4대강 유역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작년말 제정된 3대강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상·하류 지역간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이들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특히 4대강 대책은 근본적인 수질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치밀함과 엄격성은 물론 상·하류간의 정치적인 이해와 타협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만큼 우리부는 새로이 시도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착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수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한다든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확정하는 등 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수단으로 이들 3대강 대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라 할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업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부는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주민대표 등과 함께 현지를 조사하고 협의를 거쳐 이들 보호구역이 차질없이 지정되어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그동안 4대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상·하류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데에는 상류지역의 규제에 상응하여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에서 상류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상·하류간의 공영(共榮)정신이 토대가 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수계별 수계관

리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한 행정조직의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업들은 4대강 수계에 대한 유역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이들 4대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에코-2 프로젝트」추진

작년 한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을 기치로 우리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에코-2 프로젝트」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작년에 중국 북경에 설치한 한국환경기술·산업전시관을 거점으로 WTO 가입, 올림픽 유치 등을 계기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시장을 국내 환경산업체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중국의 환경기초시설 수주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첨단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01년 500억원 → 02년 700억원)하고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예측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이버 환경전문인력은행을 운영하여 환경인력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수급의 중개역할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폐기물분야에 있어서는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재활용 의무를 지닌 대상제품과 목표량,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 등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전제품, 형광등,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에 이어 금년중 윤활유, PC(컴퓨터), 플라스틱류까지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 대상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마비점을 사전에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우리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1회용품 줄이기”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생활화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용수관리에 있어서는 2000년에 수립된 물절약종합대책을 평가·보완하여 10년 단위의 「물수요관리 종합대책(02~11)」을 수립하고, 공급·소비·배출단계별로 물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물절약투자대행업(WASCO)이 활성화되도록 표준계약서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목욕업·숙박업 등 절수의무화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종래의 절수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년까지 227만가구(01년 102만 가구)에 절수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별·오염원별 오염배출량과 환경오염방지 비용 및 자연자산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한 과학적 통계기반을 확립하고, 환경부·통계청·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오염과 개선효과를 국민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녹색GDP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기업환경보고서 작성을 통한 기업의 환경경영성과 평가·공개제도를 도입해 나가고,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등을 장려하는 등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보전 기반구축

그간의 국토관리정책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치우쳐 왔던 까닭에 곳곳에서 국토의 난개발과 국토훼손의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사전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근거규정을 대폭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올해에는 우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토환경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장기(10년) 「국토환경보전계획(03~12)」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토환경보전의 목표와 추진전략, 토지의 환경성평가,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구분기준, 친환경적 개발계획기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의 자연환경 현황과 각종 보전지역 등을 반영한 「국토환경지도」를 제작하여 과학적인 국토환경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단계부터 과학적 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

친화성이 제고되도록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우선 3대강 수계별 특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 등을 추가·확대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전담인력 보강,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보급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영향평가에 관한 각종 통계 및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영향평가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금년에는 지난 0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렸던 세계환경정상회의의 개최 10주년을 기념하여 「Rio+10」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가 남아공화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 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 차원의 WSSD 준비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21세기 들어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년 10월 인도에서 개최예정인 제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즈음하여 국내적인 대응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제고 및 대체에너지개발, 친환경적 연료전환 등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망라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WTO 뉴라운드 범정부 대책기구에 환경분야 실무협상대책반을 설치하여 무역·환경 연계 의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4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금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개최하여 중국 서부지역 생태복원사업 및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등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아울러 UNDP, 지구환경기금(GEF)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등 남북환경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 체감 환경질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앞서 언급한 시책 외에도 우리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환경시책들을 금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해이다. 정부는 이번 월드컵을 환경친화적인 대회로 치루어냄으로써 월드컵을 계기로 고양된 우리나라의 환경이미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환경질 개선의 전기로 삼고자 한다. 우선 개최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월드컵 개최전까지 약 2천여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 등과 함께 「월드컵 시민환경실천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비닐막대풍선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경기 전·후 클린업타임(clean-up time)제 등 「환경친화적 대회운영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먹는물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농어촌·도시지역·중소도시 등 급수취약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 처리기준(Treatment Technique)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도물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체나 환경상의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역별 환경잔류실태에 대한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동강유역에 대한 생태계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생물표본과 생물종의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를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에 착수('06년 완공 예정)할 계획이다.

4. 맺는말

현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제 경제는 물론 정치·교육·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현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의식과 실천이 변화할 때이다. 우리 환경부는 그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여타 정부부문은 물론 기업과 일반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아래 깨끗하고 쾌적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환경보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環境保全**

새가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출종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업체명	대표자	주소
	가이시자동차공업사	김명성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84	덕수섬유산업	김봉순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부리 9392
	시각시자동차정비	박창노	경북 구미시 산동 76	동우산업	이중석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728
	강산기부보정비	김인호	경북 구미군 부계면 장평리 1036-1	포현수지	이정숙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879
	중앙위생사	변병도	경북 구미시 남동동 863	동국비료(주)	배시재	경북 안동시 완동면 서현리 280
	영주위생사	이정호	경북 영주시 해인동 261-10	웅성수지산업	장복동	경북 경산시 용성면 덕전리 149-1
	성표환정(주)	김윤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2-7	환우산업	김연식	경북 김천시 용성면 삼리리 62
	대운산업	김대운	경북 경산시 진량읍 가이리 494	산진기업	주근식	경북 구미시 임은동 378-2
	평화산업	변일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142-1	(주)진용산업	경북 성주군 용안면 사곡리 988	
	인강형제석물	박석주	경북 경주시 인강읍 인강1리 2247	원광대학교부속의산현병의원	전국	익산시 신동동 344-2
	미성실업(주)	조시홍	경북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1688-16	(유)철성석재	변종철	전북 익산시 황등면 울촌리 888
	의성금속열처리	김은홍	대구시 북구 노원3가 56-19	동인산업(주)	김종열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180
	대구도금	이동수	대구시 북구 노원3가 176-1	(주)가이플랜트	이종록	경남 창원군 대림면 등지리 907-3
	동양금속	오성덕	대구시 북구 노원3가 318	울신무역(주)	송윤도	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124-4
	태진알미늄(주)	김상준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338-4	가성수지	이성주	충북 청원군 가덕면 정동리 340-4
	질보산업사	김은숙	대구시 서구 종리동 1170-6	(주)동진목재산업	유승철	충북 충주군 북이면 석성리 336-7
	경안종합패자장	공재호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13	장성수지산업	장성호	충북 충주군 진천읍 송두리 575
	명인산업	최규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1221	진영산업	구영국	경북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76-4
	남일동성(주)	최재우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57	(주)한국농산	조상락	충북 충주군 신니면 원평리 251
	동국종합패자장	정병열	경북 경주시 황성동 1038-2	(주)상원석재	조달형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아리 130-12
	대동자동차정비	김재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16-6	오성전자사	변성하	경북 청원군 강외면 공평리 257-28